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45-95
<https://doi.org/10.29212/mh.2021..118.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羅唐戰爭期 七重城과 買肖城 戰鬥

－ 買肖城의 位置 比定 및 靺鞨 水軍의 活動에 대한
分析을 中心으로 －

김병희*, 서영교**

1. 머리말
2. 劉仁軌 唐軍과 靺鞨 水軍의 水陸竝進
3. 靺鞨 水軍의 入江과 上陸地點：坡平 金坡里 城址
4. 七重城을 根據地로 한 唐軍의 買肖城 掌握
5. 泉城 水戰의 勝利와 李謹行의 買肖城 拋棄
6. 맺음말

1. 머리말

현재까지 칠중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들¹⁾은 많지 않았다. 가장

* 경기대학교 사학과 강사

** 교신저자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교수

1)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略報』, 『佛教美術』 7, 1983; 徐榮一, 『漢江以北의 城址와

큰 이유는 칠중성의 위치가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이 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매소성을 주제로 다룬 연구 성과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논고들이 나왔다. 특히 각 연구물들은 비중의 정도를 떠나 위치에 대한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소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료에 제시된 기록들을 감안하였을 때 羅唐戰爭期에 벌어진 칠중성 전투와 매소성 전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학설을 소개해보겠다. 크게 볼 때 漣川 大田里山城說²⁾과 楊州 大母山城說³⁾로 나뉜다.

新羅의 防禦體制 - 坡州 地域을 中心으로, 『文化史學』 10, 1998 ; 이준선, 「적성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2, 2005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2) 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1984, 110쪽 ; 崔根泳·閔德植·孫寶基 인터뷰, 李根成 기자, 「『羅·唐 격전지 買肖城<매소성>은 大田里산성」, 『中央日報』 6면(文化), 1986.06.09 ; 漣川郡誌編纂委員會, 『漣川郡誌』, 1987, 816~818쪽 ; 閔德植, 「買肖城址考」, 『孫寶基 博士 停年 紀念 考古人類學論叢』, 1988, 655~658쪽 및 666~668쪽 ;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1989, 179~193쪽 ; 安國承,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1997, 273~280쪽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18쪽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5, 74·81~88쪽 ;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7, 255쪽, 각주 48) ;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144~146쪽. - 「연천 전곡(全谷)으로 비정 ; 강성문, 「대전리산성」, 『국방일보』, 2004.02.26 ; 안국승, 「買肖城의 位置 比定」, 『경기향토사학』 11, 2006 ;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91쪽, 각주 3) ;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05쪽, 각주 143 ; 임용한, 「대당전쟁 시기 주요 격전지 연구」, 『대전리산성, 매소성인가』, 연천군·경기문화재단, 2013, 127~131쪽. - 「지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지칭하는 지금의 연천군 영역」으로 비정 ; 權昶赫, 「7세기 후반 新羅의 對唐戰爭과 복방정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7, 38~42쪽 ;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복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312~31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6쪽, 각주 85).
- 3)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537·559쪽. - 「楊州郡 州內面」으로 비정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247~248쪽 ; 社團法人 楊州文化院, 「新羅 統治期の 楊州와 買肖城戰鬪」, 『楊州郡誌』 上, 1992 ; 李恩影, 「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鬪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

먼저 연천 대전리산성설의 핵심적인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買肖城’의 어원을 살펴보면 “買”는 ‘ㅁ’의 음차로 ‘물’을 의미하고 있다. 즉, 대전리산성이 위치한 ‘한탄강’이라는 명칭에서 어원적으로 ‘한’은 순수한 우리말로 ‘크다’는 뜻이요, ‘탄’은 ‘여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탄강은 ‘한여울’ 혹은 ‘큰 여울’의 뜻이다. “肖”의 경우 독음이 ‘소’와 ‘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蘇’, 즉 ‘ㅅ’의 축음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肖’도 ‘買蘇川’의 ‘蘇’와 동일하다. ‘매소천’은 동일하게 ‘뭇내’, ‘물내’, 혹은 ‘여울’에 해당되기에 매소천의 약칭으로 ‘買肖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三國史記』에서 원술량의 전투 기록을 보면 ‘買蘇川城’이라는 명칭이 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⁴⁾

또한,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지리적 이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았다. 연천 대전리산성은 성의 규모로 보아 성역은 좁지만 성밖은 20만 대군을 수용하고도 남을 낮은 산야가 있어 한탄강과 연하여 천혜의 요지가 되며, 후퇴 시에도 용이하다고 한다. 나아가 연천 대전리산성이 위치한 한탄강 유역은 임진강 유역에 비하여 신라 군사용 방어 차단성이 적어 당군의 도강 진주 시 신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확률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학위논문, 2005, 13~27쪽; 노시경, 「중국을 몰아낸 힘 - <서울 경기 역사기행 21>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오마이뉴스(OhmyNews)』, 2006.07.17;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66쪽. - ‘양주’로 비정; 박성현,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양주시, 2012: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출판부, 2013.

4) 『三國史記』 卷43, 『列傳』 3, 金庾信 下 元述, “至乙亥年, 唐兵來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之以雪前恥. 遂力戰有功賞.”

그렇다면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연천 대전리산성설의 音相似부터 확인해보겠다. 이에 대한 박성현의 비판적인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성현에 따르면 임진강 부근에서 매소성과 이름이 유사한 군현으로는 ‘買省郡-來蘇郡(양주 대모산성)’과 ‘內乙買縣-沙川縣(연천 대전리산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각각 전자는 본명이고 후자는 경덕왕 때 고친 이름으로 연천 대전리산성설에서 매소성을 內乙買縣-沙川縣에 연결시킨 방식을 보면, ‘買蘇川’과 ‘(彌)沙川’이 모두 한탄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탄강에 인접한 대전리산성이 매소천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의 문제점은 ‘買肖’나 ‘買蘇川’을 ‘內乙買’가 아닌 경덕왕 때 漢式으로 고친 이름인 ‘沙川’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며, ‘沙川’이 ‘彌沙川’의 약칭이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에 ‘沙川’은 ‘內乙買’라는 고유어를 한자로 고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⁵⁾

북쪽에서 여울을 넘어 접근하기 쉽고 신라군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후퇴 시에도 용이하다는 대전리산성설의 지리적 관점도 문제가 있다. 북쪽으로 신라군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당군의 이동과 진격도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당군이 후퇴를 고려하여 대전리산성 주변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작전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당이 처음부터 후퇴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다음으로 양주 대모산성설의 핵심적인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당의 병력이 20만에 필적하는 대군이라고 보았을 때, 성 밖까지 주둔할 경우 연천 대전리산성 보다는 양주 대모산성 주변이 더 광활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音價 및 音相似의 유사성을

5) 박성현, 앞의 논문, 2012, 117~118쪽 : 앞의 책, 2013, 43쪽.

검토해 보면 ‘買省城’이 『三國史記』 6)· 『新增東國輿地勝覽』 7)· 『東史綱目』 8) 등 문헌사료에 보이는 ‘買省郡(縣)’과 첫 번째 글자는 일치하고 두 번째 글자는 발음이 다르지만, 字形(肖 ≍ 省)이 닮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⁹⁾ 나아가 양주 대모산성은 임진강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중간 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유역을 지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양주 대모산성설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 및 근거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진강과의 거리가 약 16~20km 정도나 되어 20만 대군이 진격하기란 너무 멀고, 또한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임진강 도강은 호로고루강 또는 육계토성 방면이나 당포성이 있는 담개 나루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상기 지역은 북안 호로고루성과 육계토성, 칠중성 등 신라군의 방어용 군사 시설인 차단성이 있어 이 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렵다.

6) 『三國史記』 卷35 「雜志」 4 地理2 新羅 來蘇郡.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乎縣 本高句麗波害平吏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京畿」 楊州牧 建置沿革. “本高句麗買省郡一云昌化郡 新羅景德王改來蘇 高麗初陞見州 顯宗九年屬楊州.”

8) 『東史綱目』 第4下 「乙亥」. “買省卽買省郡今楊州.”

9) ‘省’과 ‘肖’는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로 ‘肖’가 ‘省’으로 잘못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현은 이러한 견해에 덧붙여 경덕왕 때 買省郡을 來蘇郡으로 고쳤다는 점을 유의해보면 買省城의 ‘肖(소)’ 대신에 ‘소생’의 뜻이 있는 ‘蘇’를 취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 뒤, 음상사에 의한 지명 비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삼국사기』 에 나오는 신라 지명들은 대체로 지리지의 군현명과 대응 관계를 통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이며 신뢰도가 있다고 하였다(박성현, 앞의 논문, 2012, 118쪽 : 앞의 책, 2013, 43~44쪽). 즉, 매성군은 매소군과 같은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셋째, 양주 대모산성까지 오는 도중에 주변에 칠중성, 수철성, 아미성(노고산성), 육계토성, 북안 호로고루성, 마전리 당성, 은대리토성, 도라산 보루성과 같은 신라의 차단성이 있어 이를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唐將 李謹行은 본 지역에서 전투경력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전노장으로서 이와 같은 위험한 지역을 택했을 가능성이 적다.

다섯째, 원술랑이 매소천성에서 싸웠다고 하는데 양주 대모산성 부근에는 이와 같은 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명 유추만을 전거로 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¹⁰⁾

이상의 지적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양주에서 임진강까지의 거리가 약 16~20km 정도가 된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또한 양주까지 오는 도중에 주변에 여러 요새 때문에 차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매소성의 위치 비정은 현재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¹¹⁾ 그렇지만 『冊府元龜』 등 중국

10) 이상 안국승, 앞의 논문, 2006, 237쪽 정리. ‘양주산성’은 ‘양주 대모산성’으로 고쳐 인용하였음.

11)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은 모두 『三國史記』에 기록된 買肖城과 買蘇川城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서로 다른 별개의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는데 전자를 양주 대모산성, 후자를 연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한 경우도 있고(김병희, 『羅唐 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研究 - 位置 比定과 675年の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1, 3~30쪽;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 91, 2014, 197~215쪽; 『羅唐戰爭의 終了 始點에 대한 再檢討 및 買肖城 戰役의 過程 研究』, 『한국고대사탐구』 30, 2018, 231~233쪽) 전자를 水谷城(황해북도 新溪 또는 平山 이북), 후자를 買召忽(인천)로 비정한 경우도 있다(윤경진, 『買肖城 전투와 羅唐戰爭의 종결 - 『三國史記』 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 분석』, 『史林』 60, 2017a, 166~174쪽;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 2017b,

기록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매소성 전투 이전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사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첫째, 675년 2월에 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이 여러 장벽을 제거하고 임진강의 여울을 넘어 칠중성을 장악하였다.

둘째, 같은 시기에 말갈군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남하하였다.

위 2가지 사실 가운데 지금까지 전자는 주목받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劉仁軌의 당군을 주력으로 보고 말갈군을 단순히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며, 『三國史記』에 말갈의 육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¹²⁾ 그렇다 하더라도 말갈 수군의 활동은 부정할 수 없다. 唐·靺鞨 군대가 한반도 진입에 있어 水陸並進한 것이 확실하며, 칠중성을 장악한 劉仁軌의 당군과 상호유기적인 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진실을 규명하는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먼저 한·중 사서에 기록된 675년 2월 기사에 실린 劉仁軌와 李謹行的 남침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史實을

259~260쪽). 한편, 양주 대모산성과 연천 대전리산성 모두 매소성이거나 매소성 전투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산성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축성의 기법·주체·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양쪽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소성이 전곡 부근의 한탄강 이북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심광주, 『楊州 大母山城의 築造方法과 築城時期』,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양주시, 2012 :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 『築城技法을 통해 본 大田里山城과 周邊 城郭의 歷史的 位相』,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군·경기문화재단, 2013, 55~63쪽 및 77·82쪽).

12) 『三國史記』 卷47, 『列傳』 7, 素那를 보면 675년 봄에 阿達城이 靺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보면 아달성 전투의 기록이 675년 9월 29일 조에 있다. 칠중성·적목성 전투도 마찬가지다. 唐軍과의 싸움인 석현성 전투와 大小 18회 전투 역시 그러하다.

검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매소성과 함께 칠중성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675년 9월 泉城 전투의 패배 이후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劉仁軌 唐軍과 靺鞨 水軍의 水陸竝進

일단 水陸竝進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사다)에 의하면 東晉의 북벌 영웅 劉裕는 보급 시 배와 말을 함께 이용하는 전술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원래 중국의 지형은 南船北馬로 불리는 것처럼 양자강 유역에는 수로가 많아서 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삼았으며, 북방의 황하연안 평야에서는 말이 운송의 동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劉裕는 강남의 전투에서는 배를 이용하면서 말로 보조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북방에서는 말을 이용하면서 배로 보조하여 중원의 장안과 낙양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宮崎市定(미야자키 이치사다)은 배의 경우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군수품을 운반할 때 말이나 馬車 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전쟁은 보급전’이라는 명제는 동서고금의 철칙이라고 하였다. 즉, 양식이 충분하고 손상된 무기를 즉각 보충할 수 있는 쪽이 승리한다는 것이다.¹³⁾ 羅唐戰爭도 예외가 아니다.

670년 3월에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 도합 2만이 압록강을 넘어 烏骨城까지 북상하였고, 4월에 이들과 당 휘하의 靺鞨軍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¹⁴⁾ 같은 해 6월에는 唐에 저항하였던 고구려인들이 임진강을 건너 신라 영내로 들어왔다.¹⁵⁾ 다음 해인 671년에

13) 宮崎市定 著, 임중혁·박선희 譯, 『중국중세사』, 신서원, 1996, 162~163쪽.

14)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10년 3월 및 4월 4일 조. “三月, 沙湲薛烏儒, 與高句麗太兄高延武, 各率精兵一萬, 度鴨綠江至屋骨, □□靺鞨兵先至皆敦壤, 待之. 夏四月四日, 對戰, 我兵大克之, 斬獲不可勝計. 唐兵繼至, 我兵退保白城.”

당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였다.

- A. 9월에 唐의 將軍 高侃 等이 蕃兵 4만을 거느리고 平壤에 도착하였다. 깊이 도랑을 파고 높이 보루를 쌓고서 帶方을 쳐들어왔다. 겨울 10월 6일에 唐의 漕船(수송선) 7十餘 척을 공격하여 郎將 鉗耳大侯와 士卒 百餘 명을 사로잡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 級洸 當千의 功이 第一이라 沙滄의 관위[= 관등]를 주었다.¹⁶⁾

자료 A에 따르면 671년 9월에 당의 고간 등이 蕃兵(= 靺鞨兵) 4만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들어와 요새를 건설한 다음, 지금의 황해도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海戰이 일어났다. 당의 장군 고간의 병력 4만을 먹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식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신라는 당의 선박이 대동강¹⁷⁾ 또는 예성강¹⁸⁾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671년 10월 6일에 곡물을 가득 실은 당나라의 수송선 70여 척이 나타났고, 매복하고 있던 신라의 수군이 이를 덮쳤다. 그 결과 당의 많은 배들이 격침

15)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文武王 10년 6월 조.

16)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 9월 및 10월 6일 조. “九月, 唐將軍 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深溝高壘, 侵帶方. 冬十月六日, 擊唐漕船七十餘艘, 捉郎將鉗耳大侯, 士卒百餘人, 其淪沒死者, 不可勝數. 級洸當千功第一, 授位沙滄.”

17) 許重權,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158~160쪽.

18) ‘侵帶方(帶方을 쳐들어왔다)’에서 예성강의 가능성을 제기해보았다. 또한 『三國遺事』 卷2, 「紀異」 2, 文虎(= 武)王 法敏 기사에는 ‘貞州에서 사자가 달려와 보고 하길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 신라)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록(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迴滄海上.”)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주’는 현재 북한 개성특별시 개풍구역으로 서해에서 예성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가리키므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필자는 대동강 보다는 예성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며, 나당전쟁 당시의 전황과 전선을 고려할 때 경기만 북부의 해안가부터는 당의 수군을 정탐하는 신라의 첩보원들이 도처에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되었고, 수많은 唐人들이 익사하였다. 식량을 배달해줄 당의 수군이 격침되자 당군 4만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평양·황해도 방면에서의 羅唐戰爭은 10개월 동안 소강기에 접어든다.¹⁹⁾

사료 A의 전투는 羅唐戰爭期에 한반도로 진격한 당의 군대가 바다로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강들은 대체로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西海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당의 군대가 만조 때 보급선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에서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급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필자의 기본 안목이며, 675년의 전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75년 2월의 기록을 확인해보겠다. 이때 당의 재상이자 장군인 劉仁軌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왔다. 해당 기록들을 비교 검토해보자. 먼저 『冊府元龜』를 보고자 한다.

B.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는 신라의 무리를 七重城에서 大破하였다. 또한 靺鞨兵과 함께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신라의 南境을 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劉)仁軌가 군사 隊伍를 정돈하여 점검하고 돌아왔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으로 安東鎮撫大使를 삼고 신라의 買肖城에 군대를 주둔시켜 經略의 前後로 세 번 싸웠는데, 신라가 모두 패하였다. 신라는 이에 사신을 보내 入朝해서 머리를 숙여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울러 方物을 마치니 앞뒤로 서로 이어졌다.²⁰⁾

19)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182~188쪽.

20)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上元二(門)年二月 劉仁軌大(火)破新羅之衆於七重城 又以靺鞨兵(闡幢/誅羈兵)浮海而南略(暮)新羅之南境 斬獲甚衆 仁軌勒兵而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屯兵於新羅之買肖城 以經略之(容步)前後三戰新羅皆敗 新羅於是遣使(便)入朝伏罪並獻方物前後相屬." - 괄호 부분은 바로 앞의 밑줄 친 글자가 다른 판본에서 다른 글자인 경우 (단, 정자·속자는 한국식으로 통일)

사료 B에 따르면 劉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다고 한다. 또한 말갈병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南略하여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총사령관이었던 劉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귀국하자 말갈인 추장 李謹行이 安東鎮撫大使가 되어 新羅의 買冑城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같은 사실을 전하는 『資治通鑑』의 기록을 보자.

- C. 2월에 劉仁軌는 신라의 무리들을 七重城에서 大破하였고, 또한 말갈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신라의 南境을 치게 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劉)仁軌가 이끄는 군대가 돌아왔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신라의 買冑城에 주둔시켜 이를 經略하게 하였고, 세 번 싸워 모두 이겼다. 신라가 이에 사신을 보내 入貢하고 또 謝罪하였다.²¹⁾

사료 C에 따르면 675년 2월에 劉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대파하였고, 靺鞨을 시켜 바다를 통해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여 많은 신라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안동진무대사로 임명된 李謹行이 매소성에 주둔하여 신라를 經略하게 하였다고 한다. 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왔다고 하고 있다.

『資治通鑑』의 저자 司馬光是 바다로 이동한 말갈군이 신라의 南境을 공격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참획하였다고 記述하였다. 그는 『冊府元龜』의 기록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劉仁軌의 칠중성 大破와 바다를 통한 말갈군의 움직임을 전혀 다른 별개의 작전으로 볼 수 있을까? 말갈 수군이 신라의 南境(남해안)을 공격한 것은 劉仁軌의 七重城 함락과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上元 2年. "二月 劉仁軌大破新羅之衆於七重城 又使靺鞨浮海略新羅之南境 斬獲甚衆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屯新羅之買冑城以經略之 三戰皆捷 新羅乃遣使入貢且謝罪."

칠중성(경기도 과주시 적성면)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서 주전선이 펼쳐졌고, 말갈 수군의 작전목표도 이 싸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한다. 이번에는 『新唐書』의 기록을 보자.

D. 咸亨 5년에 ... 조서를 보내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을 副(부총관)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끝까지 토벌하게 하였다. 上元 2년 2월에 (劉)仁軌는 七重城에서 그 무리를 깨뜨리고 靺鞨兵으로 바다를 건너 南境을 치게 하니, 목을 베고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고 買肖城에 주둔시켜 세 번 싸웠는데, 오랑캐(신라)가 모두 달아났다. (金)法敏이 사신을 보내 入朝해서 謝罪하는데, 貢物의 광주리가 줄을 이었다.²²⁾

咸亨 5년은 674년이다. 사료 D에 따르면 이때 劉仁軌는 신라를 침공하는 雞林道大總管에 임명되었고, 衛尉卿 李弼과 右領軍大將軍 李謹行이 그의 부총관이 되었다. 그리고 上元 2년, 즉 675년의 2월에 劉仁軌가 이끄는 당나라 군대는 육로를 통해 임진강을 넘어 칠중성(경기도 과주시 적성면)에서 신라군을 격파하고 성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말갈군은 바다를 통해 이동하였다. D의 기록에서는 말갈군이 배를 타고 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라의 北境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資治通鑑』의 저자 司馬光은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冊府元龜』와 『舊唐書』를 대신하여 새로이 편찬된 『新唐書』의 기록을 보고 비교 검토한 후에 당군이 ‘新羅之南境’을 공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新唐書』의 저본이 된 『冊府元龜』의 기록을 더 신빙성이

22) 『新唐書』 卷220, 列傳 145, 東夷, 新羅. "咸亨五年, ... 詔劉仁軌爲鷄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副之, 發兵窮討.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買肖城 三戰虜皆北 法敏遣使入朝謝罪貢篚相望."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新唐書』의 저자도 『舊唐書』에 빠져 있는 靺鞨 水軍의 기록을 『冊府元龜』에서 찾아내 보충하는 과정에서 ‘南略新羅之南境’을 ‘略南境’으로 압축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상을 감안할 때 필자의 입장에서는 문구 자체 보다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新唐書』의 기록대로 唐이 南境(= 신라의 北境)을 공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말갈 수군의 신라 南境 공격은 넓게 보면 경기만 일대의 장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중성 점령을 위해 임진강 수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화도와 김포 일대를 평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수군 기지로 추정되는 黨項城의 위치(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으로 비정)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지금의 인천 앞바다 전 지역과 김포를 통과하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뒤에 말갈 수군의 임진강 진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舊唐書』 列傳의 劉仁軌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E. 咸亨 … 5년에 (劉仁軌는) 雞林道大總管이 되어 동쪽으로 가서 新羅를 쳤는데, (劉)仁軌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瓠蘆河를 건너 北方의 요충지(大鎮) 七重城을 깨뜨렸다.²³⁾

사료 E의 기록을 보면 劉仁軌는 병력을 이끌고 瓠蘆河(임진강)를 건너 신라 북방의 큰 진지인 칠중성을 함락시켰다. 그렇다면 그의 후임인 李謹行은 그와 함께 육로로 왔다고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갈이 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李謹行이 靺鞨 수군을 지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하여 丁若鏞의 견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 『舊唐書』 卷84, 『列傳』 34, 劉仁軌. “咸亨 … 五年, 為雞林道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徑度瓠蘆河, 破其北方大鎮七重城.”

F. 上元 2년에 (劉)仁軌는 七重城[지금의 積城]에서 新羅兵을 깨뜨렸다. 또한 靺鞨兵과 함께 바다를 건너 南境[忠淸·全羅 지역]을 쳤다. 조서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고 買肖城[지금의 仁川]에 주둔시켰다. 얼마 안 되어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고, 百濟 故地는 모두 新羅로 편입되었다.²⁴⁾

사료 F의 기록에 의하면 정약용은 매소성의 위치를 바다와 접한 인천으로 보았다. 매소성이 인천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나, 정약용 역시 말갈 수군을 이근행이 지휘한 것으로 보았다고 여겨진다. 즉, 정약용은 말갈 수군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물론, 南境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볼 수 없다. 정약용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資治通鑑』의 찬자가 『新唐書』를 신뢰하지 않고 『冊府元龜』를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과 맥락이 같다. 당시 당군이 칠중성을 점령하여 그 주변의 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말갈 수군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남겨진 기록이 후대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칠중성과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당군과 차후에 해결해야 할 보급까지 감안하면, 말갈 수군이 작전을 벌였던 지역은 서해에서 가까운 임진강 南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⁵⁾ 사료 B(『冊府

24) 丁若鏞, 「八道沿革總叙」下, 『我邦疆域考』其三, 與猶堂全書. “上元二年, 仁軌破新羅兵于七重城.[今積城] 又以靺鞨兵浮海, 略南境.[忠淸·全羅地]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屯買肖城.[今仁川] 尋皆撤還, 百濟故地盡入新羅.”

25) 필자는 작전을 지휘한 당의 장수가 營州都督府 소속 蕃兵을 지휘한 이근행이었던 만큼 말갈 수군의 주축은 營州에 있던 속말말갈 내지 백산말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서영교,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2006, 40-54쪽). 또한 이전에 신라의 포로가 되었다가 672년 9월에 송환된 당의 ‘王藝’는 직책이 ‘萊州司馬’인데(『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2년 9월) ‘萊州’는 山東반도의 당 수군기지가 위치하였던 곳이므로(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류류성, 2012, 148쪽) 이들의 출항지 역시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이동 경로는 연안 항해를 통해 遼東반도 앞과 황해도 장산곶을 거쳐 경기만으로 이어지는 海路(강경구,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302쪽)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元龜)의 기록을 연결시켜 고려해보면, 말갈 수군은 물이 불어날 때 강화도 북부 수로로 들어와 임진강으로 진입하면서 곳곳에 상륙한 뒤 신라군을 격파하여 강의 길을 여는 작전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⁶⁾ 또한 말갈 수군이 칠중성으로 향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劉仁軌가 칠중성을 점령한 직후 황제로부터 귀국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다음의 기록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G. 황상은 風眩이 심한 것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아 天后로 하여금 國政을 섭정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中書侍郎·同三品 郝處俊이 말하기를, “천자가 밖의 일을 처리하고 황후가 안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늘의 道입니다. 옛날에 魏文帝가 명령을 내려서 비록 어린 주군이지만 황후가 조당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禍亂의 싹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高祖와 太宗의 천하를 자손에게 전해주지 않고, 天后에게 이를 맡기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中書侍郎인 昌樂 사람 李義琰이 말하기를, “(郝)處俊의 말은 지극히 충성스러우니 폐하께서는 의당 이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니, 황상이 마침내 중지하였다.²⁸⁾

사료 G에 따르면, 675년 3월에 唐 高宗이 건강 악화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모든 국정을 則天武后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이 고종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전후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정변을 수반하는

26)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5. “又以靺鞨兵(闡曠/誅靺鞨)浮海而南略(暮)新羅之南境 斬獲甚衆.” - 괄호 부분은 바로 앞의 밑줄 친 글자가 다른 판본에서 다른 글자인 경우 (단, 정자·속자는 한국식으로 통일)

27)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仁軌勒兵而還.”

28)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上元 2年 3月. “上苦風眩甚, 讓使天后攝知國政. 中書侍郎同三品郝處俊曰, 天子理外, 後理內, 天之道也. 昔魏文帝著令, 雖有幼主, 不許皇后臨朝, 所以杜禍亂之萌也. 陛下奈何以高祖·太宗之天下, 不傳之子孫而委之天後乎. 中書侍郎昌樂李義琰曰, 處俊之言至忠, 陛下宜聽之. 上乃止.”

통치 권력의 변동에 대한 문제는 唐 高宗과 則天武后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나라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劉仁軌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²⁹⁾

따라서 劉仁軌의 본국 소환과 그를 대신한 李謹行의 安東鎮撫大使 임명을 위해서 황제의 詔書를 지참한 사신이 칠중성에 도착했을 개연성이 크다. 황제 詔書의 도착과 인수인계의 장소를 그 외의 다른 곳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漢人을 포함한 군대를 靺鞨人이 지휘하게 되었으므로, 황제의 권위가 부여된 공식적인 인수인계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인수인계 직후 李謹行은 칠중성에서 당·말갈군을 이끌고 매소성으로 가서 주둔하였다. 사료 B(『冊府元龜』)를 다시 보면, 李謹行의 매소성 주둔을 전후하여 3차례의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³⁰⁾ 즉, 매소성을 차지하는데 신라와의 전투가 있었고, 점령 후에도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靺鞨 水軍의 入江과 上陸地點：坡平 金坡里 城址

조선총독부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임진강 본류에서 수운이 가능한 지역은 120km인데, 3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제1구역은 안협에서 전곡까지로, 수심은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보면 2~3m였다. 이 구역에는 40여 개의 여울이 있으며, 암초가 곳곳에 점재하기 때문에 수위가 높을 때에 곡물 50~70석을 운반하는 소형선이 통행하였다. 제2구역은 전곡에서 고랑포까지로, 수심은 2.5~4.5m

29) 曹凌, 『唐·新羅戰爭史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89~90쪽.

30)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 31, 征討 5. “以李謹行爲安東鎮撫大使屯兵於新羅之買肖城 … 前後三戰新羅皆敗.”

였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유량이 많아지나 이 구역에서도 호로탄이나 술탄 등 여러 여울이 있어서 적재량은 최대 100석을 넘지 못하였다. 제1·2구역에는 많은 여울이 발달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여울의 일부 퇴적물을 파내는 이른바 ‘배골파기’ 작업이 행해졌으며, 배골을 통하여 배를 견인하는 전문 종사자들이 있었고 배는 평저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제3구역은 고랑포에서 하구까지로, 이면 수심은 대체로 5~7m였다. 조수의 영향권에 속하고 하폭이 상대적으로 넓을 뿐 아니라 하도의 경사도 완만하여 수위가 낮을 경우에도 소강이 용이하였다. 결빙기와 홍수기 이외에는 바다로 외양 항해를 할 수 있었고, 적재량이 최대 400석까지도 가능하였다고 한다.³¹⁾

고랑포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대형 선박들의 소강 종점일 뿐만 아니라 상류 쪽을 왕래하는 소형선들의 기항지 중에서도 핵심으로, 임진강 수운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칠중성은 멀지 않다. 그렇다면 말갈 수군이 고랑포에서 물자를 소형 배들로 옮겨 싣고, 七重城 앞까지 갔을까? 나아가 배를 소형으로 바꾸어 매번 옮겨 실어가면서 수많은 여울들을 넘어 전곡 부근까지 물자를 수송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언제나 수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여울을 넘을 때마다 전문화된 현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평화 시에는 가능하겠으나 전쟁 상태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10만이상이 되는 병력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배가 들어와 직접 하역을 하지 못하는 장소는 곤란하다. 여기에서 칠중성과 거리가 먼 대전리산성을 이근행이 근거지로 삼았다는 연천 대전리

31) 이준선, 앞의 논문, 2005, 163~164쪽. 한탄강이 130km라는 긴 수역임에도 배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임진강과 합류하는 도감포에서 12킬로 떨어진 전곡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었다.

산성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가 임진강·한탄강에서 가깝다고 하나 그곳은 서해 바다에서 임진강 하구를 통해 들어온 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애가 적지 않아 수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말갈 수군의 상륙지점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임진강 하구부터 고랑포 사이의 구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여러 포구 가운데서도 그곳은 당군이 임진강 이남의 최대 거점인 칠중성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곳이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파주시 파평면에 위치한 牛浦에 주목하고 싶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자.

H. 牛浦는 坡平山 밑에 있다. 물의 근원이 積城縣 경계에서 나와 臨津에 흘러든다. 서편 언덕 위에 궁궐(官闕) 遺地가 있는데 주춧돌과 섬돌이 아직도 남아있다.³²⁾

사료 H에 기록된 牛浦(金坡里 城址)는 현재 주소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 18인 장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놀노천(노리천)이 장마루를 지나 남쪽으로 바뀌어 임진강으로 흘러가면서 합치게 되는 지점, 즉 임진강과 놀노천(노리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牛浦(金坡里 城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전한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朝鮮總督府에 의해 편찬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31쪽에는 이곳 성벽의 길이가 약 66間, 높이는 2間이고 토축이 동서로 달리고 있으며, 그 남방의 경지 중에는 건물터의 초석이 남아있어 주변에 瓦片이 산포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 1977년에 간행한 『文化遺蹟總覽』 上卷의 221쪽에 의하면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京畿」, 坡州牧. “牛浦在坡平山下 源出積城縣界流入臨津 西岸上有官闕遺址 礎砌尙存.”

후고구려의 궁예왕이 철원에서 피신하여 거주하면서 쌓은 土城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³³⁾

또한 이곳에는 馳馬臺가 있었고, 이 城址는 평지성이며 호로고루성·당포성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임진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와 단애를 이룬 임진강변의 삼각형 땅 윗부분을 가로막은 성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외형은 비슷하나 실제 기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호로고루성과 당포성은 건너기 쉬운 나루터 길목에 있어 건너오는 세력을 저지하거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지만, 이곳 金坡里 城地는 강폭이 넓은 뿐 아니라 놀노천(노리천)이 임진강과 만나는 지점 이외의 지역이 평평하여 강북에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金坡里 城址는 강북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으로 보기가 어렵다. 토성은 그 내부에 위치한 지배세력의 건물과 생활공간을 구획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³⁴⁾

金坡里 城址를 강북에서 군대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없고, 이곳에 馳馬臺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지역의 들은 매우 넓다. 금파리와 장파리 일대의 서에서 동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야는 칠중성까지 연결되어 있다.³⁵⁾ 나아가 과거에 金坡里城은 앞서 언급한 군사적인 측면과 함께 건물터 등으로 추정해보면 사찰 등이 건립되고 행정적인 치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임진강 남안의 주요교통로인 汶山川路와 雪馬川路의

33)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106~107쪽; 과주시,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크기획, 1999, 316쪽;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Vol.2 문화유적(1), 경기출판사, 2001, 313쪽.

3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4, 107쪽 및 111쪽.

35) 서영일은 금파리 성지가 비교적 넓은 평야 지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서 일단 강을 건너온 적에게는 취약하기 때문에 내성벽과 외성벽을 동시에 축조하여 겹성의 구조를 가지고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배후에 축조된 산성과 연계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64쪽).

중앙부에 위치하여 두 길을 모두 연결하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평지성으로서 성내 가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의 성내 평탄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 걸쳐 토기·기와·자기류가 산재해 있으며, 건물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면석들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³⁶⁾

바다에서 배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고, 교통상의 지리적 이점과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는 입지조건 및 칠중성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城址는 羅唐戰爭 당시 당군의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곳은 물자를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륙한 병력이 칠중성으로 이동할 때 배후기지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사료 D(『新唐書』)에서 675년 2월에 仁軌가 신라군을 칠중성에서 격파하고(破其衆於七重城), 말갈병으로 바다를 통해 南境을 공략하게 하니(以靺鞨兵浮海略南境), 참획한 신라군이 많았다(斬獲甚衆)고 하였던 바로 그 장소는 금파리와 장파리 일대의 평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말갈군의 상륙을 예상한 신라가 이곳에서 저지하려 하면서 큰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군이 패배하면서 상륙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675년 2월에 임진강의 여울을 건너온 劉仁軌의 唐軍과 금파리에 상륙한 靺鞨軍이 칠중성을 포위하였던 것 같다. 워낙 막대한 병력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신라인들의 저항도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칠중성은 함락되었고, 임진강 이남에서 당군의 일대 거점이 되어 버렸다. 이후 당·말갈군의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劉仁軌는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가 육로로 복귀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웅진도독부의 지휘관으로 있을 때는 선박을 이용하여 본국을 왕래한 경험이 있고 당시 당의 내부

36)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12~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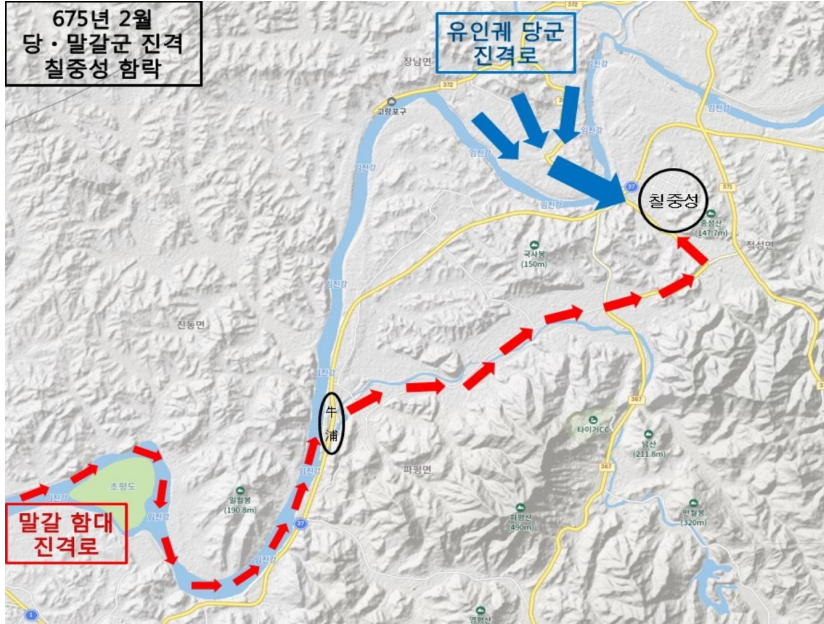
상황까지 감안해보면 해로로 복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에 제시한 <사진>은 화면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파리 일대가 대규모 함대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장소의 최적지임을 알려준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논지를 정리해보면 <지도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진> 하늘에서 본 임진강과 금파리 일대 (우측)



<지도 1> 675년 2월 유인궤 당군 및 말갈 함대의 칠중성 함락 당시 진격로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4. 七重城을 根據地로 한 唐軍의 買肖城 掌握

칠중성은 신라의 북방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였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 I.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七重城을 침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놀라 동요하며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왕(= 선덕여왕)이 大將軍 關川에게 命하여 (그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모여 살도록 하였다. 11월에 關川이 고구려 군사와 七重城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들이 매우 많았다.³⁷⁾

사료 I에 따르면, 638년(선덕여왕 7년) 10월에 고구려 군대가 칠중성 앞에 있는 여울을 건넜던 것 같다. 칠중성이 갑자기 침공을 당하자 백성들이 놀라 산골짜기로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골짜기는 칠중성에서 양주로 넘어가는 설마리 溪谷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계곡은 칠중성의 백성들이 양주로 도주할 수 있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關川이 양주 방면에서 올라와 칠중성에 도착하면서 수습되었던 것 같다. 다음 달인 11월에 城民들을 결집시킨 신라 장군 關川은 칠중성 바깥의 임진강 남안에서 고구려 군대와 싸웠다. 이 싸움에서 배후에 칠중성을 둔 신라군은 뒤에 강이 막고 있는 고구려 군대 보다 전략적으로 앞서 있었다.

城이란 농성의 장소로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城은 城의 바깥에서 유리한 싸움을 하도록 유도하는 배후기지의 역할을 한다. 싸우다가 지치면 성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이에 성 안의 교대 인력이 성 밖으로 나가 싸운다. 다시 성 밖의 지친 병력이 들어오면 휴식을 취한 병력이 다시 나아가 싸우는 기지이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싸워야 장기전이 가능한 것이다. 關川은 칠중성을 배후기지로 잘 활용하여 고구려 군대를 격파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660년에도 이곳 칠중성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다.

J. 匹夫는 沙梁 사람이며, 아버지는 尊臺 阿滄이다. 百濟·高句麗·靺鞨이 점점 친해지다가 아주 밀접한 사이가 되어 그들이 함께 신라 침탈을 도모하자, 太宗大王이 충성스럽고 용감한 인재로서 능히 적을 방어할 만한 사람을 구하여 匹夫를 七重城 아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인 경신(660년) 가을 7월에 왕이 唐나

3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善德王 7년 10월 및 11월.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入山谷. 王命大將軍關川, 安集之. 十一月, 關川與高句麗兵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라 군사와 함께 百濟를 격멸하였다. 이에 高句麗가 우리를 미워하여 겨울 10월에 군사를 동원하여 七重城을 포위하였으므로, 匹夫가 이를 수비하면서 20여 일 동안 계속하여 싸웠다. 賊將은 우리 士卒들이 성의를 다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逆臣 大奈麻 比敵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적에게 고하기를,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힘이 다 하였으니 만약 이를 친다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고 알리는 바람에 적은 다시 공격해왔다. 匹夫가 이 사실을 알고 칼을 뽑아 比敵의 머리를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군사들에게 말했다. “충신과 의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하라! 이 城의 存亡이 이번 싸움에 달려 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며 한바탕 호통을 치니 병든 자들도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城에 올랐으나, 곧 사기가 사라져 사상자가 반이 넘었다. 그때 적이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성 안으로 공격해왔다. 匹夫는 上千 本宿·謀支·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 그러나 빗발 같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어,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리자 땅에 쓰러져 전사하였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게 울며 그에게 급찬을 추증하였다.³⁸⁾

사료 J를 따르면, 659년에 匹夫는 칠중성의 성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660년 7월에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10월에는 당나라 장군 蘇定方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에서 철수

38) 『三國史記』 卷47, 「列傳」 7, 匹夫. “匹夫, 沙梁人也, 父尊臺阿浪. 太宗大王以百濟·高句麗·靺鞨, 轉相親比, 爲唇齒, 同謀侵奪, 求忠勇材堪綏禦者,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 高句麗疾我, 以冬十月, 發兵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盡誠, 鬪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逆臣大奈麻比敵密遣人告賊, 以城內食盡力窮, 若攻之必降, 賊遂復戰. 匹夫知之, 拔劍斬比敵首, 投之城外. 乃告軍士曰‘忠臣義士, 死且不屈, 勉哉努力! 城之存亡, 在此一戰.’乃奮拳一呼, 病者皆起, 爭先登, 而士氣疲乏, 死傷過半.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千本宿·謀支·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 大王聞之, 哭甚痛, 追贈級浪.”

하자 백제 부흥운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라는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백제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고구려가 신라의 七重城을 공격해왔다. 20여 일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배신자에 의해 城안의 정보가 노출되어 七重城이 함락되었다.

七重城은 신라를 기준으로 볼 때 북방에서 내려오는 적을 막아내는 첫 관문이었다. 七重城이 함락된 후인 661년 5월에 고구려군은 말갈군과 함께 신라의 북한산성(= 아차산성 : 北漢山 명문 출토)을 공격하였다.³⁹⁾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三國史記』 卷35, 雜志4. 地理2를 보자.

K. 來蘇郡은 본래 高句麗의 買省縣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見州이다. 거느리는 縣은 둘이다. 重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七重縣(= 七重城)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積城縣이다. 波平縣은 본래 高句麗의 波害平吏縣이었던 것을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⁴⁰⁾

사료 K에 제시된 來蘇郡은 지금의 京畿道 楊州를 말한다. 七重縣(= 積城)은 來蘇郡의 領縣이다. 七重城이 남쪽으로 설마리 고개 너머에 위치한 楊州의 관할을 받았던 것이다. 교통이 좋지 않다면, 이러한 행정구획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신라 朔州의 긴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행정구획은 길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었다. 칠중성에서 양주로 들어가면 의정부를 거쳐 상계동과 중계동 그리고 하계동을 지나 아차산성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는 661년 5월 고구려군의 북한산성(= 아차산성) 침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3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太宗武烈王 8년 5월 9일 및 『三國史記』 卷43 『三國史記』 卷42, 「列傳」 2, 金庾信中.

40) 『三國史記』 卷35, 「雜志」 4. 地理 2, 新羅, 來蘇郡. “來蘇郡, 本高句麗買省縣, 景德王改名. 今見州. 領縣二. 重城縣, 本高句麗七重縣, 景德王改名. 今積城縣. 波平縣, 本高句麗波害平吏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한편, 波平縣도 楊州(= 來蘇郡)의 領縣이다. 波平縣에 속한 금파리의 넓은 들판을 지나면 칠중성이 나오고 그곳에서 설마리를 지나 곧장 양주로 갈 수 있다. 이는 675년 2월에 말갈 수군이 임진강으로 들어와 파평현의 금파리 성지에 상륙하였다고 본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⁴¹⁾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칠중성을 중심으로 양주와 파평면 금파리는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의 기록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L. 乾封 2年(667년)에 이르러 大摠管 英国公(= 李勣)이 요동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漢城州에 갔으며, 그곳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국경에 집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라 군사가 단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먼저 3회에 걸쳐 정탐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보내 唐나라 군사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大軍(= 唐나라 군대)가 아직 平壤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七重城을 공격하여 길을 열어 놓고, 大軍(= 唐나라 군대)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城이 거의 함락되려고 할 때, 英公의 사자(使人)인 江深이 와서 이르기를 ‘신라 군대가 반드시 城을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 平壤으로 조속히 군대를 파견하여 병기와 군량을 공급하라는 大摠管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명령으로 (군대를) 모아 행군하여 水谷城에 당도하자,

41) 서영일은 波平縣이 고구려의 波害平史縣으로 경덕왕이 파평으로 고쳐서 來蘇郡의 영현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아(『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坡州牧 建置沿革) 현재 파주군 坡平面 일대에 해당되며 이곳의 고대 성지로는 金波里 城址가 주목되는데, 대부분 유실되어 파평현과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金波里 城址가 토성이었으며 대궐터로 불리고 있고, 이곳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파평현의 치소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되고 하였다. 또한 주변에는 평야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파평현의 치소로는 金波里 城址가 유력하다고 하였다(서영일, 앞의 책, 1999, 269쪽).

大軍(= 唐나라 군대)이 이미 회군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 신라 군대도 그곳을 즉시 빠져 나왔습니다.⁴²⁾

사료 L(『答薛仁貴書』)에 따르면, 667년에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신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가 평양 부근에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에 배를 띄워 3회에 걸친 탐문에 나섰다. 아마도 신라의 諜報船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정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무왕은 漢城州에 직접 가서 국경에 군대를 모우고 북진할 준비를 한 다음에, 북방에 집결한 군대를 움직였다. 즉, 漢城州에서 국경으로 간 다음에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칠중성을 함락시켜 길을 열어놓아야 했다. 그런데 정탐의 보고는 한결같이 ‘唐나라 군대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신라군이 칠중성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당의 장군 李勣(= 大摠管 英國公)이 보낸 사자인 江深이 와서 곧장 북상하라고 해서 水谷城(황해북도 新溪 또는 平山 이북)까지 북상했다가 당군이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 사료 L에 나타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의 주력이 칠중성까지 북상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신라가 북상하기 위해서는 칠중성을 함락시켜 북쪽의 문을 열어야 한다.

둘째, 칠중성을 공격하여 성을 거의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당의

42)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 7월 26일 答薛仁貴書. “至乾封二年, 聞大摠管英國公征遼, 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規候大軍. 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 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 其城垂垂欲破, 英公使人江深來云, ‘奉大摠管處分, 新羅兵馬不須打城, 早赴平壤, 即給兵糧遣, 令赴會.’ 行至水谷城, 聞大軍已迴, 新羅兵馬, 遂即抽來.”

장군 李勣(= 大總管 英国公)의 사신 江深이 와서 신라군의 복상을 독촉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의 서울 또는 서울 부근에 있었다고 여기지는 漢城州의 신라 병력이 칠중성으로 진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노정을 거쳐야 한다. ‘이성산성 → 아차산성 → 하계동 → 중계동 → 상계동 → 의정부 → 양주 → 칠중성’의 코스이다. 그리고 675년 이전에 鷄林道行軍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당사자 중 한명이었던 李謹行은 劉仁軌를 보좌하는 副將으로, 임진강 전선에서 경험에 축적된 상태였다.⁴³⁾ 이미 이 시기에 唐은 임진강 수로와 칠중성 부근의 교통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연천 대전리산성을 매소성으로 보는 학자들은 말갈군이 북쪽에서 육로로 왔다고 본다는 점이다. 또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전투를 수행한 말갈군과 칠중성을 함락시킨 劉仁軌의 唐軍을 별개의 작전으로 보았다. 아무래도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기록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싶다.

M. 말갈이 阿達城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城主 素那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唐兵이 거란·말갈병과 함께 와서 七重城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小守 儒冬이 죽었다. 말갈이 또한 赤木城을 포위하여 滅하였다. 縣令 脫起가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다가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唐兵이 또한 石峴城을 포위하고 쳐서 빼앗았는데, 縣令 仙伯과 悉毛 등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또한 우리(신라) 군대가 唐兵과 크고 작은 18번의 전투에서 모두 그들을 이겼는데, 머리를 벤 것이 6천 4십 7級

43) 『册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咸亨 … 四年閏五月, 燕山道總管李謹行, 破高麗叛黨, 於瓠虬河之西, 高麗平壤餘衆, 遁入新羅. 五年二月, 遣太子左庶子·同中書門下三品劉仁軌, 爲雞林道大總管, 衛尉卿李弼·右領軍大將軍李謹行爲副, 發兵以討新羅.”

이었고 戰馬 2백 필을 얻었다.⁴⁴⁾

사료 M의 기록은 675년 9월 29일 매소성에서 당·말갈군이 물러난 직후의 전투 기록이다. 대체로 철수하던 말갈군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전투가 벌어진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석현성을 제외한 다른 성들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아달성과 적목성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성들이고, 칠중성은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다. 그렇다면 매소성에서 물러난 당·말갈군이 강원도 북부로 흩어지면서 전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데,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주장하였던 학자들은 이러한 점에 많은 시사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퇴한 강원도 북부 방면에서 역시 말갈군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하여 연천의 대전리 일대에 와서 진을 치고 이들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아달성 전투의 시기(675년 봄)와 장소(강원도 북부)도 매소성의 위치 비정에 있어 연천 대전리산성설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아달성 공격의 주체는 말갈이었지만, 672년 2월 대부분의 말갈 병력은 서해를 통해 들어왔고, 매소성 주둔 병력도 말갈 이외에 漢人도 있었다. 따라서 아달성을 공격한 말갈은 전체 말갈 중 소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달성 전투의 시기가 675년 봄이면 일부 말갈이 강원도 북부 방면에서 남하한 것이고, 9월 29일 이후라면 매소성에서 철수한 말갈의 일부일 것이다. 일부 말갈의 존재를 통해 매소성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675년 9월에 신라가 지키던 칠중성을 당·말갈·거란군이 공격하였다.⁴⁵⁾ 이는 신라가 이전에 칠중성을 탈환하였다는 것을 말

4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率百姓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又我兵與唐兵 大小十八戰 皆勝之 斬首六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45)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

해준다.⁴⁶⁾ 신라의 칠중성 탈환은 당군의 패퇴를 상징하는 사건이며, 매소성 주둔 당 병력에게 타격을 준 것이 확실하다. 대전리산성이 매소성이라면 그곳에서 철수를 단행한 당의 병력이 거꾸로 남하하여 칠중성으로 진격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매소성이 대모산성⁴⁷⁾이거나 적어도 양주 내에 위치하였다면 당군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 현상을 이해하기 쉽다. 양주에서 동두천을 지나 연천·철원을 통해 얼마든지 강원도 북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주에서 설마리 고개를 넘어 칠중성을 포위한 가운데 임진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하는 경로는 언제나 이용된 노정이다.

4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팀은 이를 근거로 675년 2월에 칠중성이 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신라군은 이곳을 끝내 지켜냈다고 보았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4, 77쪽). 그러나 언급한 중국 측 기록들을 보면, 劉仁軌가 칠중성을 2월에 함락시킨 것이 확실하다. 여러 중국 기록의 저본이 되는 『冊府元龜』를 보면 劉仁軌가 咸亨 5년에 雞林大總管으로 東伐하여 新羅를 쳤는데, 仁軌가 兵을 이끌고 瓠蘆河를 건너 신라의 北方大鎮인 七重城을 깨뜨려서 그 功으로 進爵하여 公이 되었다고 하였다(『冊府元龜』 卷 384, 將帥部, 褒異10. “劉仁軌 … 咸亨五年, 爲雞林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 徑渡瓠蘆河, 破其北方大鎮七重城, 以功進爵爲公.”).

47) 2020년에 기초문화재연구원이 양주시의 양주 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한 10차 발굴조사에서는 규모와 상태가 양호한 集水地와 우물이 확인되었고, 삼국~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토기류·기와류·철기류·목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집수지에서 출토된 목부재에서는 낙죽기법으로 새겨진 글자가 확인되었는데, 동일한 방식의 명문은 경주 안압지 출토 목간 외에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주목된다는 연구가 최근에 제출되었다(여성민,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 -10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64, 2020, 259쪽 및 264~269쪽). 앞서 확인하였듯이 연천 대전리산성설은 ‘물’에 집착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지명 이외에도 대규모 병력의 식수 공급과 관련 있다고 보면 양주 대모산성설도 집수지와 우물의 확인으로 식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압지 목간과 동일한 기법의 명문 목부재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양주 대모산성이 매소성일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그러나 필자는 만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매소성이 지금의 양주는 확실하지만, 대모산성이 아닐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양주 분지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주 대모산성의 경우 매소성이 아니라고 하면 매소성과 연계되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은 틀림없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가 칠중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칠중성 앞의 임진강에는 여울이 있어 강을 도하하는 것이 용이하고, 칠중성을 점령해서 근거지로 삼아야 설마리 고개를 통과하여 양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중성이라는 요새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험한 설마리 고개의 길목을 방어하는 것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설마리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남침의 대로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칠중성을 점령해야 한다. 칠중성을 차지한 이후 설마리 고개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돌아오는 전략적 보상은 매우 크다.

군은 작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전략적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 위험한 설마리 고개를 넘어 양주로 들어가면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나타난다. 아차산성까지 진격하면 그곳에서 한강을 수운으로 이용하여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미 고구려가 한강을 병력 수송의 수로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N. 龍朔 元年(661년) 봄에 왕은 百濟의 잔적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伊淪 品日·蘇判 文王·大阿淪 良圖 등을 將軍으로 삼아 그들을 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伊淪 欽純[欽春이라고도 함]·真欽·天存·蘇判 竹旨 등을 보내 우리 군사를 구원하게 하였다. 高句麗와 靺鞨은 新羅의 정예병이 모두 百濟에 출병하여 국내가 비었으므로, 신라를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군사를 출동시켜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여 北漢山城을 포위하였다. 高句麗는 성의 서쪽에 진을 치고 靺鞨은 성의 동쪽에 주둔하여 10일 동안 공격을 계속하자 성 안은 공포와 두려움에 싸였다. 그때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지에 떨어지고 또한 뇌우와 함께 벼락이 쳤다. 그러자 적들은 당황하여 놀라 포위를 풀고 도주하였다. 처음에 庾信은 적이 성을 포위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사람의 힘은 이미 다하였으나 하늘의 도움

은 얻을 수 있다.” 그는 사찰로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였는데, 마침 天變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庾信의) 至誠에 감동한 결과라고 말하였다.⁴⁸⁾

사료 N에 따르면, 661년 봄에 신라는 다시 백제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이때 고구려는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 지역에 가 있어 북방의 방비가 비었으므로 신라를 공략하기가 쉽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660년 10월에 칠중성을 손에 넣은 고구려와 말갈은 이듬해 북한산성을 공격한 적이 있다. 물론 고구려·말갈군 가운데 하나는 칠중성에서 양주를 거쳐 의정부 그리고 상·중·하계동을 지나 북한산성에 진입하였을 것이다.

북한산성은 한강변에 위치한 아차산성으로 보인다. 최근에 아차산성에서 ‘北漢山’이라는 명문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사료 N의 밀줄 친 기록에서 보이듯이 고구려·말갈군 가운데 일부 혹은 상당수는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고구려·말갈은 병력 이외에 군수물자도 함께 배에 싣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군수물자는 수로를 이용하면 20배 이상 효율적이다.

앞서 살펴본 675년 2월의 기록들을 검토해보면, 당군은 말갈군과 함께 수륙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李謹行은 麟德 年間(664~665년)에 營州都督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羅唐戰爭에 3번 중군한 高侃도 營州都督이었다.⁴⁹⁾ 이들 소속의 병력들이 羅唐

48) 『三國史記』 卷42, 「列傳」 2, 金庾信中. “龍朔元年春, 王謂百濟餘燼尚在, 不可不滅, 以伊滄品日·蘇判文王·大阿滄良圖等爲將軍, 伐之, 不克. 又遣伊滄欽純 一作欽春·真欽·天存·蘇判竹旨等, 濟師. 高句麗·靺鞨, 謂新羅銳兵, 皆在百濟, 內虛可擣, 發兵水陸並進, 圍北漢山城. 高句麗營其西, 靺鞨屯其東, 攻擊浹旬, 城中危懼. 忽有大星, 落於賊營, 又雷雨震擊, 賊等疑駭, 解圍而遁. 初庾信聞賊圍城曰, ‘人力既竭, 陰助可資.’ 詣佛寺, 設壇祈禱.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

49) 『舊唐書』 卷199下, 列傳 149下, 北狄, 靺鞨. “貞觀初, 拜右衛將軍, 賜姓李氏. 尋卒. 子謹行, 偉貌, 武力絕人. 麟德中, 曆遷營州都督.”; 『新唐書』 卷3, 本紀3, 高宗, 乾封元年(666) 6月. “六月壬寅, 高麗泉男生請內附, 右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

戰爭에 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679년 당시 영주도독부의 병력규모는 18만에 달했다.⁵⁰⁾ 그렇다면 후술할 사료 R(『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에서 李謹行 휘하의 병력을 20만이라 기록한 것을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⁵¹⁾

병력의 수가 많을수록 바다를 통한 보급의 의존도 또한 높아진다. 羅唐戰爭期에 당군도 서해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강의 한계지점, 즉 바다에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을 벗어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매소성에 주둔하였다는 ‘20만’의 병력을 먹이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675년 2월 劉仁軌의 칠중성 점령 그 자체가 설마리 고개를 넘어 ‘양주 → 의정부 → 서울’로 가기 위한 작전목표의 수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양주 일대의 지형은 동쪽의 칠봉산(해발 506m)에서 천보산(해발 337m)으로 이어지는 천보산맥이 감싸고 있으며, 북한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가 동봉산(해발 717m)·사패산(해발 522m)·호명산(해발 399m)을 거쳐 남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서쪽은 호명산에서 북서쪽

遼東安撫大使，率兵援之。左金吾衛將軍龐同善，營州都督高侃爲遼東道行軍總管，左武衛將軍薛仁貴，左監門衛將軍李謹行爲後援。”；『資治通鑑』 卷201，唐紀 17，高宗 咸亨 元年 4月。“夏四月庚午，高麗酋長劍牟岑反，立高藏外孫安舜爲主。以左監門大將軍高侃爲東州道行軍總管，發兵討之，安舜殺劍牟岑，奔新羅。”；『資治通鑑』 卷 202，唐紀 18，高宗 咸亨 2年 7月。“七月乙未朔，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資治通鑑』 卷202，唐紀18，高宗 咸亨 3年 12月。“十二月，高侃與高麗餘衆戰於白火山，破之。新羅遣兵救高麗，侃擊破之。”

50) 『舊唐書』 卷84, 列傳3 4, 裴行儉. “調露元年(679), 突厥阿史德溫傅反, 單於管內二十四州並叛應之, 衆數十萬. 單於都護蕭嗣業率兵討之, 反爲所敗. 於是行儉爲定襄道行軍大總管, 率太僕少卿李思文, 營州都督周道務等部兵十八萬, 並西軍程務挺, 東軍李文暉等總三十餘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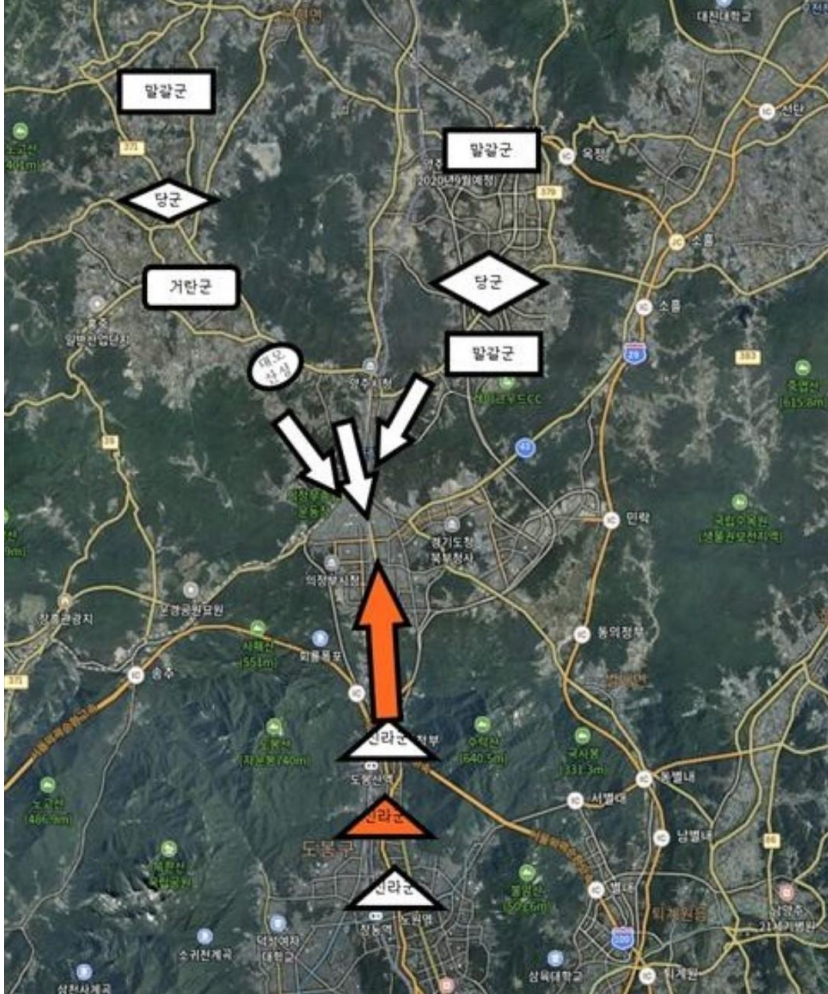
51) 영주도독에 소속되거나 제어를 받고 있는 변방군이 18만에 이른다는 것은 675년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이근행의 병력이 20만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또한 羅唐戰爭期 전 기간에 걸쳐 영주도독부 소속 말갈-거란군을 지휘한 장군은 속말말갈인 이근행이었다(서영교, 앞의 논문, 2006, 46:54쪽).

으로 은봉산(해발 399m)을 거쳐 북쪽으로 노아산(해발 367m)·노고산(해발 401m)·감악산(해발 675m)으로 이어진다. 양주시청 서쪽으로는 불곡산(해발 469m)·도락산(해발 441m)의 산줄기가 이어지는데, 이를 중심으로 양주 일대의 지형은 동서로 양분된다. 양주는 거대 분지로, 그 가운데에 불곡산과 도락산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10만 이상의 병력과 3만 필 이상의 말이 충분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된다.⁵²⁾ 결국 대모산성이 매소성인지의 여부를 떠나 연천보다는 양주가 매소성이 위치한 지역일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675년 2월에 당·말갈군은 양주 분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넓게 퍼져 있어 경기 북부 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신라군은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좁은 지역에 진을 치고 의정부를 사이에 두면서 당·말갈군과 대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표시해보면 <지도 2>와 같다. 이때 양측 간에 전투가 있었지만, 당·말갈군이 남쪽으로 돌파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사료 상으로는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고고학적 성과 등 추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는 추후의 과제로 일단 남기고자 한다.

5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楊州市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25쪽 및 43쪽.

<지도 2> 675년 2월 이후부터 675년 9월까지 신라군과 당·말갈·거란군 대치도



* 출처 : 구글 지도 편집

5. 泉城 水戰의 勝利와 李謹行의 買肖城 拋棄

675년 2월에 전투가 발생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675년 9월에 泉城에서 전투가 일어났다. 泉城의 위치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로 통일전망대가 있는 오도산성(또는 오두산성)으로 보인다.⁵³⁾ 泉城 전투의 기록을 확인해보자.

- O. 가을 9월에 薛仁貴가 宿衛學生 風訓의 아버지 金眞珠가 본국에서 처형당한 것을 이용하여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泉城을 쳐들어 왔다. 우리(신라)의 장군 文訓 등이 맞아 싸워 이겨서 1천4백 명의 목을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풀고 도망감에 따라 戰馬 1천 필을 얻었다.⁵⁴⁾

사료 O을 통해 신라군이 唐軍 戰船 40척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泉城 앞에서 海戰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671년 9월에 당의 수송선 70여 척을 격침시켰다는 사료 A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의 해군력은 보급의 비중이 커지는 가을에 집중되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三國史記』 都彌 列傳에 실린 ‘泉城島’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한다.⁵⁵⁾ 또한 당의 수군 구성을 알려주는 『三國史記』의 기사 역시 주목하게 된다.

5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고증이 되어 있다.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27~233쪽.

54)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秋九月,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鄉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 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55) 『三國史記』 卷48, 『列傳』 8, 都彌. 이 기록에 따르면 都彌가 백제의 漢城에서 배에 떠내려가 泉城島에 닿았고, 그 부인도 漢城에서 泉城島로 가서 도미를 만났다고 한다. 여기서 泉城이 漢城으로부터 수로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의 오도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P. 劉仁軌와 別帥 杜爽 및 夫餘隆은 水軍과 軍糧선(糧船)을 이끌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와서 ...56)

Q. 水陸諸軍總管并轉糧使 寶義積·獨孤卿雲·郭待封 등은 ...57)

사료 P에 따르면 ‘水軍及糧船’, 즉 수군 및 군량선이라 하여 당 수군은 戰艦과 식량수송선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함이 식량수송선을 호위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사료 Q의 기록에서 水陸諸軍總管과 곡물보급을 담당한 轉糧使라는 관직명이 보인다. 따라서 675년에 泉城으로 접근한 당의 수군도 보급선과 그것을 호위하는 전함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신라 수군은 675년 9월에 泉城島에서 唐의 戰船을 노획하고 運糧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의 수군이 천성에서 패배하였을 때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이근행의 병력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R. 29일에 李謹行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買肖城에 주둔하였다. 我軍(신라군)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해서 戰馬 3만 3백 8십 필을 얻었으며, 그 남겨놓은 兵仗器도 이에 이르렀다.⁵⁸⁾

사료 R은 675년 9월 29일의 매소성 전투에 대한 기사이다. 이를 따르면 천성에서 전함과 보급선으로 편성된 당의 수군이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매소성 주둔 이근행 부대도 곧바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겨울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자 당·말갈·

56)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6, 義慈王, 唐 高宗 龍朔 2年(662) 7月.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 帥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 ...”

57) 『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25년 12월. “水陸諸軍總管并轉糧使 寶義積·獨孤卿雲·郭待封等, ...”

58)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9월 29일.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四, 其餘兵仗稱是.”

거란군은 무력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군은 별다른 전투 없이 이들을 매소성에서 쫓아버렸으며, 당의 대군은 싸우지도 않고 말 30,380필과 엄청난 병기를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⁵⁹⁾ 신라군이 전리품 획득 외에 당의 병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전사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상한 감을 준다. 이는 이호영의 지적⁶⁰⁾은 적절하다.

말을 버리고 당의 병력이 퇴각한 정황은 그들에게 보급이 두절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말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후속 보급이 없다면 말은 기름이 떨어진 탱크나 마찬가지다.

『漢書』 卷69, 趙充國傳을 보면 군마 1마리의 1개월 식량이 병사 1인의 1년 식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말 한마리가 병사 12명의 식량을 먹는다는 계산이다.⁶¹⁾ 사료 M에 보이는 내용, 즉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 일부가 약탈을 자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갈군이 적목성(강원도 회양)을 공격해 함락시킨 사건은 군사적인 거점 확보보다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의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근행이 이끈 당의 병력은 그 숫자가 1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많은 군대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漢兵과 蕃兵⁶²⁾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병력 가운데 일부는 앞서 언급한 ‘동두천 → 연천 → 철원 → 회양’ 방면으로 철수를 했고, 다른 일부는 양주시 봉암리 방면에서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일부는 설마리 고개를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59) 서영교, 앞의 책, 2006. 236~2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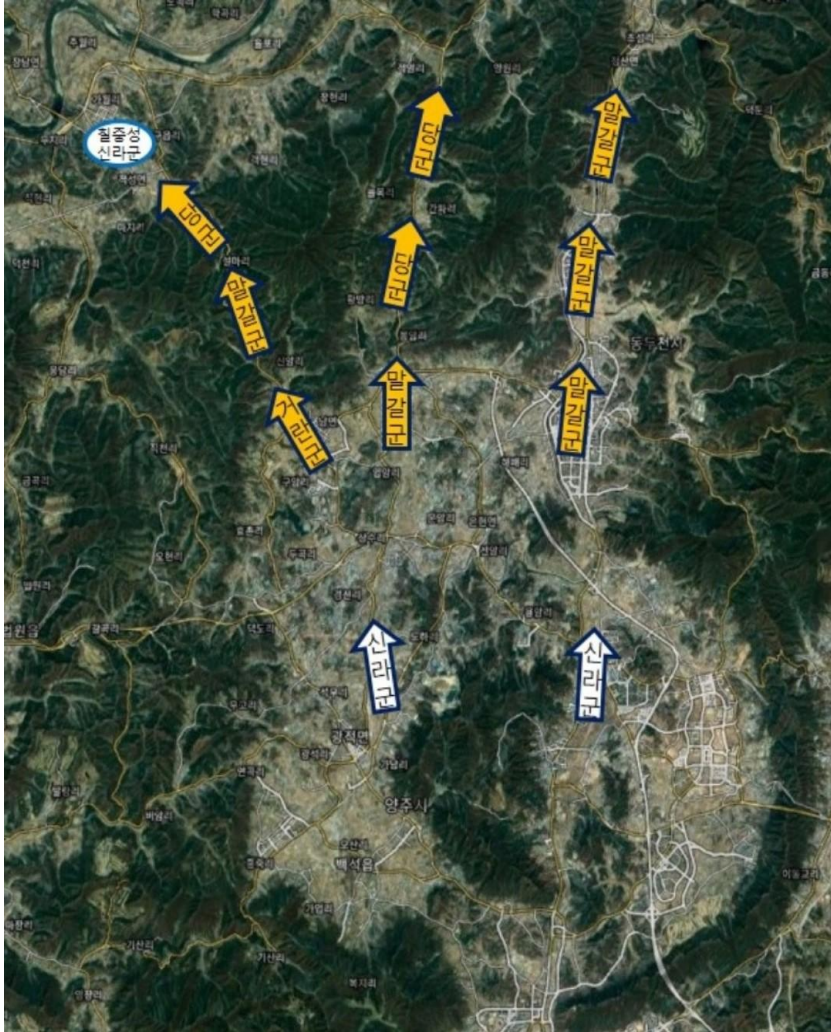
60)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9, 255쪽.

61) 서영교, 앞의 책, 2006. 237쪽.

62) 말갈의 경우 영주에서 동원된 부대와 전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附庸된 집단이 섞여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한쪽으로 후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탈은 일부일 뿐 주된 병력은 신속한 철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이동하였을 것이다.

시한 3가지 길을 지도에 표시해보면, <지도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도 3> 675년 9월 29일 매소성 전투 당시 당·말갈·거란군 후퇴로 추정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그렇다면 설마리 고개를 당·말갈·거란군이 넘고 있을 때 칠중성은 신라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泉城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칠중성을 지키던 당·말갈·거란군은 즉시 후퇴하였고, 곧바로 신라군이 비어있는 칠중성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泉城에서 병선 40척을 빼앗기는 등 상당한 병력 손실이 있었으므로, 일단 임진강 수로를 이용하여 퇴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병력 손실의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발대로 퇴각한 당·말갈·거란군 중 일부가 후방에서 북상하는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칠중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단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 사료 M의 칠중성 전투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당·말갈·거란군이 철수하였던 3가지 길 가운데 ‘양주 ~ 적성’ 구간이 main route, 즉 가장 주된 노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한·중 사서에 기록된 675년의 나당전쟁 기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칠중성 전투 직전 당·말갈군의 수륙병진 및 상륙지점에 대해 확인하고 칠중성의 전략적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매소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추정하면서 당의 퇴각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맺음말은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매소성의 위치 비정은 크게 연천 대전리산성설과 양주 대모산성설로 압축된다. 최근에는 어원과 음상사 및 지리적 이점 등에 근거를 둔 연천설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연천설은 어원과

음상사를 통한 분석에서 ‘買省’·‘買蘇川’을 고유어인 ‘內乙買’가 아닌 경덕왕 때 漢式으로 고친 이름 ‘沙川’과 비교하고 있으며, ‘沙川’이 ‘彌沙川’의 약칭이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신라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북쪽에서 여울을 넘어 접근하기와 후퇴가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도 문제가 있다. 당이 후퇴를 고려하는 수세적인 전략을 펴기 위해 연천 대전리에 주둔하였다는 것은 작전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양주 대모산성설은 성 주변의 공간이 광활하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 買省郡의 통일신라 경덕왕 때 嶺縣이 重城縣(= 고구려 七重縣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과 波平縣(= 고구려 波害平吏縣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인 점, 買省郡은 買省郡과 같은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고 있다. 양주설에 대해서는 임진강에서 너무 멀고 감악산의 험한 설마리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는 점, 주변에 신라의 차단성이 있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고 돌파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이러한 위험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 성 부근에 강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처럼 두 학설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중국 기록과 정약용의 『我邦疆域考』는 675년 2월에 유인케의 당군이 임진강을 넘어 신라군을 대파하고 칠중성을 장악하였으며, 말갈군이 바다를 통해 배를 타고 남하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당·말갈군은 수륙 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이는 당군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통한 보급에 의존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당군이 만조 때 보급선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점에서 동쪽 내륙으로 들어가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급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필자의 기본 안목이기에, 유인케의 칠중성

신라군 대과와 바다를 통한 말갈군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별개의 작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당서』의 기록대로 당이 신라의 北境을 공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말갈 수군의 최종 상륙지점은 칠중성에서 최대한 인접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칠중성과 거리가 먼 대전리산성을 이근행이 근거지로 삼았다는 연천설은 납득이 곤란하다.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 유역은 수량이 적고 여울이 많아 수로 역할에 장애가 되어 바다에서 배가 들어와 직접 하역하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바다로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말갈 수군의 상륙지점은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임진강 하구에서 고량포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데 필자는 牛浦, 즉 금파리 성지를 주목하고 싶다. 이곳은 임진강과 눌노천(= 노리천) 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변 일대에 서에서 동으로 길쭉하게 뻗은 평야가 칠중성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나당전쟁 당시 당군의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고 보관하는 장소 및 칠중성 이동을 위한 배후기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는 임진강의 여울을 건너온 유인궤의 당군과 금파리 성지에 상륙한 말갈군이 칠중성을 포위하였던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한편, 연천 대전리산성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말갈군이 북쪽에서 육로로 왔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전투를 수행한 말갈군과 칠중성을 함락시킨 유인궤의 당군은 별개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매소성 전투 기록 다음에 보이는 전투 기사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매소성에서 물러난 말갈군이 들어올 때는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하여 연천 대전리 일대에 주둔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대전리산성이 매소성이라면 매소성에서 철수한 당의 이근행 병력이 왜 거꾸로 남하하여 칠중성으로 진격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반면 매소성의 위치가 양주라면 이근행 부대의 철수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 현상들을 이해하기 쉽다. 퇴각로를 다각도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남침하는 군대가 칠중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칠중성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험한 설마리 고갯길의 방어가 확실하며, 설마리 고개만 넘어 양주로 들어가면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나타난다. 또한 아차산성까지 진군할 경우 수운을 이용하여 재보급을 받을 수 있기에, 설마리 고개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양주를 전략적 거점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군은 675년 2월에 말갈군과 함께 수륙병진을 한 것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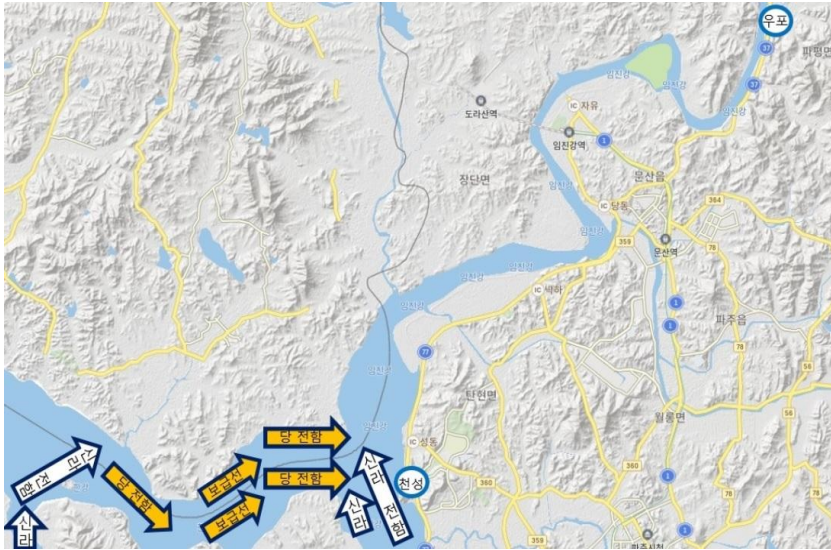
따라서 羅唐戰爭期에 당군이 서해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강의 한계지점, 즉 바다에서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벗어나긴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만, 당의 이근행 부대가 매소성을 중심으로 하는 양주 분지에 주둔하자 신라군은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좁은 지역에 진을 치고 의정부를 사이에 둔 채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당의 병력은 더 이상 남쪽으로 돌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675년 9월에 천성 전투가 일어났다. 그런데 패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급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매소성에 주둔하였던 한병과 변병은 여지없이 무력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의 병력은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군대가 한 쪽 방향으로만 후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는 ‘동두천 → 연천 → 철원 → 회양’ 방면으로, 다른 일부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방면에서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북상한 것으로, 또 다른 일부는 설마리 고개를 넘어 철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성 전투 패배의 소식이 전해지자 칠중성을 지키던 당의 병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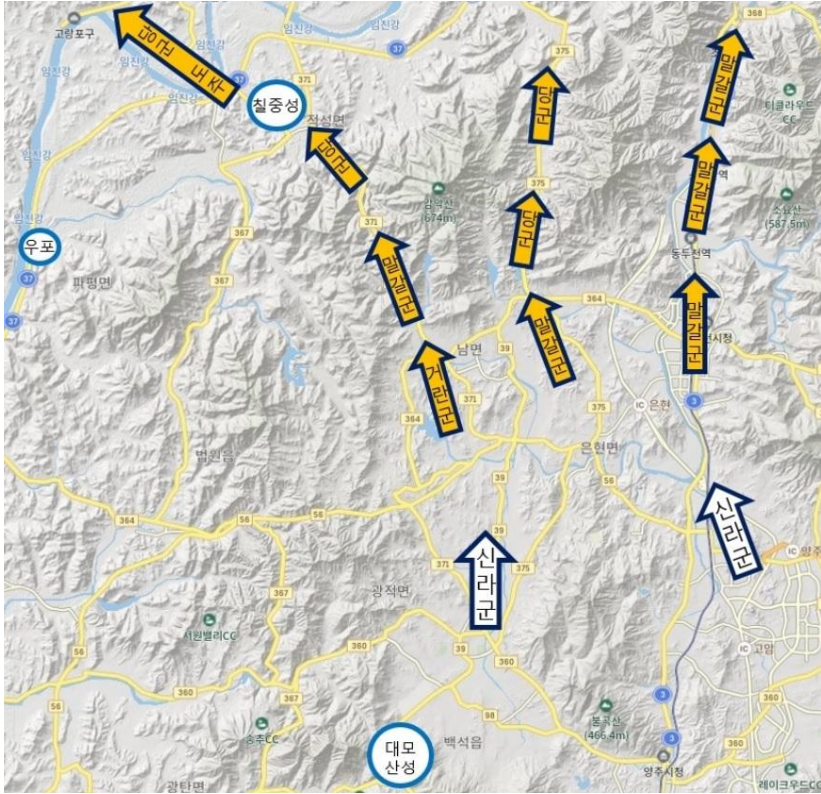
그대로 후퇴하였고, 이에 신라군이 비어있는 칠중성을 장악하자 매소성에서 철수한 당·말갈·거란군의 선발대 일부가 설마리 고개를 통해 북상하는 후발대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칠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의 퇴각로 중 가장 주된 길은 ‘양주 → 설마리 고개 → 칠중성 → 임진강’ 구간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지도 4>와 <지도 5>로 제시할 수 있다.

<지도 4> 675년 9월 천성 전투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지도 5> 675년 9월 매소성 전투



* 출처: 구글 지도 편집

(원고투고일 : 2020. 7. 2, 심사수정일 : 2021. 2. 16, 게재확정일 : 2021. 2. 24.)

주제어 : 나당전쟁, 칠중성, 매소성, 금파리 성지(城址), 말갈, 유인궤, 이근행, 보급

<참고문헌>

1. 사서

『東史綱目』,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2. 단행본

강경구,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2007.

<http://uci.or.kr//G901:A-0006168232@N2M>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Vol.2
문화유적(1), 경기출판사, 2001.

宮崎市定 著, 임중혁·박선희 譯, 『중국중세사』, 신서원, 1996.

<http://uci.or.kr//G701:B-00047915484@N2M>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http://uci.or.kr//G701:C-00073917052@N2M>

노혁진·박성현·심광주·최맹식·김길식·심재연,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http://uci.or.kr//G901:A-0006469430@N2M>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990.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03345@N2M>

社團法人 楊州文化院, 『楊州郡誌』 上, 1992.

<http://uci.or.kr//G901:A-0008348524@N2M>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http://uci.or.kr//G701:B-00108698063@N2M>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http://uci.or.kr//G701:B-00093235608@N2M>

徐仁漢, 『羅唐戰爭史』, 國防軍史研究所, 1999.

<http://uci.or.kr//G901:A-0005982950@N2M>

손보기박사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http://uci.or.kr//G701:B-00047850205@N2M>

양주시, 『양주대모산성(楊州大母山城)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보고서』, 2012.

<http://uci.or.kr//G901:A-0008176858@N2M>

연천군·경기문화재단,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 회의, 2013.

連川郡誌編纂委員會, 『連川郡誌』, 198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5.

<http://uci.or.kr//G901:A-0008464949@N2M>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4.

<http://uci.or.kr//G901:A-0008458655@N2M>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國譯篇), 乙酉文化社, 1977.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2868843@N2M>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http://uci.or.kr//G701:C-00079070450@N2M>

李昊榮,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1997.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7922578@N2M>

과주시 &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큰기획, 1999.

抱川郡誌編纂委員會, 『抱川郡誌』, 1984.

<http://uci.or.kr//G701:B-00055353190@N2M>

3. 논문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2019.9); 289-330,

<https://doi.org/10.37331/JKAH.2019.09.95.289>

- 권창혁, 「7세기 후반 新羅의 對唐戰爭과 북방정책」,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17.
<http://uci.or.kr//G901:A-0008204401@N2M>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12); 333-371,
<https://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 김병희, 「羅唐 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研究 - 位置 比定과 675年の 戰況 復原을 中心으로」,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11.
<http://uci.or.kr//G901:A-0005649591@N2M>
- _____, 「羅唐戰爭의 終了 始點에 대한 再檢討 및 買肖城 戰役의 過程」
<https://doi.org/10.35160/sjekh.2018.12.30.185>
- _____,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 91(2014.6); 195-228,
<http://uci.or.kr/G704-001528.2014..91.008>
-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1989.6); 145-198.
- 서영교,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2006.12); 19-57,
<http://uci.or.kr/I410-ECN-0102-2008-900-002530306>
- 徐榮一, 「漢江以北의 城址와 新羅의 防禦體制 - 坡州 地域을 中心으로」, 『文化史學』 10(1998.12); 75-93,
<http://uci.or.kr/I410-ECN-0101-2009-910-016643338>
- 安國承,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1997.12); 261-291.
- 安國承, 「買肖城의 位置 比定」, 『경기향토사학』 11(2006.12); 213-263,
<http://uci.or.kr//G901:A-0002294885@N2M>
- 윤경진, 「羅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軍史』 104(2017.9); 251-290,
<https://doi.org/10.29212/mh.2017..104.251>

- 윤경진, 「買肖城 전투와 羅唐戰爭의 종결 - 『三國史記』 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 분석」, 『史林』 60(2017.4); 155-193,
<https://doi.org/10.20457/SHA.60.6>
-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체에 대한 재검토 - 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2(2019.8); 547-565,
<https://doi.org/10.35160/sjekh.2019.08.32.547>
- _____,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鬥」, 『新羅文化』 29(2007.2); 89-123,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523661>
- 李恩影, 「買肖城 位置 比定과 戰鬥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12); 1-18,
<http://uci.or.kr/G704-001361.2004.16.3.002>
- _____,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2005.12); 151-194.
- 曹 凌, 「唐·新羅戰爭史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9.
- 許重權,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5.
<http://uci.or.kr//G701:B-00052469021@N2M>
-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略報」, 『佛教美術』 7(1983.12); 13-31.

4. 신문 기사

- 『국방일보』, 2004.02.26. 강성문, 「대전리산성」
- 『오마이뉴스(OhmyNews)』, 2006.07.17., 노시경, 「중국을 몰아낸 힘 - <서울 경기 역사기행 21>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中央日報』 6면(文化), 1986.06.09. 崔根泳·閔德植·孫寶基 인터뷰, 李根成 기자, 「" 羅·唐 격전지 買肖城<매소성>은 大田里산성. 」

(Abstract)

The battle of 'Chiljung' Fortress and 'Maeso' Fortress in the Period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dynasty

Kim, Byung-hee ; Seo, Young-kyo

The battle of 'Maeso' Fortress has been paid attention in the study about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dynasty in middle of 7th century. According to the Chinese records about the situation before the battle, it was mentioned that T'ang forces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Liu Rengui(劉仁軌) crossed the Limjin river, defeated the troops of Silla, and occupied the 'Chiljung' Fortress. Also it was recorded that the troops of Malgal which was one of the tribe of the North-Western region of T'ang, advanced southward by ships. In other words, T'ang and Malgal were not separated troops that operated independently in the context of strategy, but a allied forces that advanced along both sides sea and land. As in the 『New Book of T'ang(新唐書)』,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ang attacked the northern boundary of Silla.

Therefore, it was so risky to carry out a ope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the limitation that Tang's supply ship could advanced too far to east. It meant that they had to take risk of run out of supplies. So then, the final landing place had to be as possible as close in with the 'Chiljung' Fortress. As the result, the landing place of Malgal had to be the place that a ship could enter, and It should be somewhere between the mouth of Limjin river and Gorangpo.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U-po, also called the castle site of Geumpa-ri.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e place was the place to load and keep combat strength and supplies, and the rear base for advancing to the Chiljung-seong Fortress.

It is estimated that 'Maeso' Fortress was located in Yeoncheon or Yangju. If this fortress was located in Yeoncheon, it c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allied forces pulled out from the 'Maeso' Fortress and then marched to the 'Chiljung' Fortress in south. In other words, if the fortress was located in Yangju, it could be easy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battles that had happened while the allied forces was pulling out. Because it is possible to suppose the routes of retreat from various angl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allied forces that advanced from north to south occupied the 'Chiljung' Fortress at first. A role of the 'Chiljung' Fortress is that it is easy to defend the uphill path of Seolma-ri that connected to a main road headed for Yangju and Han river.

Keywords :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The Chiljung-seong Fortress,
The Maeso-seong Fortress, The castle site of Geumpa-ri, Malgal,
Liu Rengui, Li Jinxing, supply

